

| 지난주 침례 인수                                                                                                                                                           |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br>모든 성도가 신성한 헌신 안에서 부흥되어<br>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 2016 침례 인수                                                                                                                                                                                                           |
|---------------------------------------------------------------------------------------------------------------------------------------------------------------------|-----------------------------------------------------------------------|----------------------------------------------------------------------------------------------------------------------------------------------------------------------------------------------------------------------|
| 2명                                                                                                                                                                  |                                                                       | 2명                                                                                                                                                                                                                   |
| 인 천 교 회 기 도 제 목                                                                                                                                                     |                                                                       | 목 의 요 청 기 도 제 목                                                                                                                                                                                                      |
| ◎ 201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를 낳마다 새롭게 하소서.<br>◎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br>◎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br>◎ 새해의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br>◎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br>◎ 강과 그들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 *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게 하소서<br>-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br>그분의 사역을 위임받은 대사들이임을 알게 하소서<br>-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br>고, 주님에 의하여 살고, 주님을 향하여 살게 하소서<br>- 영을 따라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화복의 사역을 수행하게 하<br>소서 |

## ◆ 교회소식

### 《현금 안내》

#### 1. 2016년 복음에 이르는 교통(현금) 안내

- ① 약정 기간 : 2015.12.27(주일) ~ 2016.1.31(주일)
- ② 현금 기간 : 2016.1.3(주일) ~ 12.25(주일)까지(매월)
- ※ 기존 하시던 분은 동일한 번호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새로 하시는 분은 약정서에 작성하시어 현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 자세한 것은 약정서를 참고하거나 봉사자들에게 문의바랍니다.

### 《인천 교회 집회 안내》

#### 1. 자매 집회 : 2016.1.21(목) 오전10시 연수동 집회장소

#### 2. 목회자 세미나 겨울 특강 (성경의 핵심)

- ① 일 시 : 1.19(화) 오전 10시 ~오후12시10분
- ② 장 소 : 인천 교회 학생센터
-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전구, 성도들

#### 3. 2015 겨울훈련 비디오회(출애굽기)

- ① 일 시 : 12.23(수)저녁 ~ 2016.1.31(주일)까지
- ② 장 소 : 각 지역별
- \* 실시간 집회와 비디오회를 일원화하여 실시합니다.

#### 4. 인천 교회 전체 집회

- ① 일 시 : 1.24(주일)오전 10시~12시30분
- ② 장 소 : 공촌동집회장소

#### 5. 대학생, 청년, 직장인 쉬임 집회

- ① 일 시 : 1.24(주일) 애잔 오후 6시, 집회 오후 7시30분
- ② 장 소 : 작전동 집회장소

###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 1. 2016년 서울 전시간 훈련생 모집안내(신청연장)

- 가. 청년전시간 21기 훈련 기간 : 2016년 2월 ~ 2018년 1월
- 나. 청년전시간 23기 훈련 기간 : 2016년 2월 ~ 2017년 1월
- ※ 신 청 : 2016.1.18(월)까지 집사실로 신청

##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1.04(월) ~ 2016.01.10(주일))

| 지역   | 1지역<br>(88명) |    |    |    |    | 2지역<br>(98명) |    |    |    |    | 3지역<br>(110명) |    |    |    |    | 4지역<br>(116명) |    |    |    |    | 5지역<br>(96명) |    |    |    |    | 6지역<br>(52명) |    |    |    |    | 7지역<br>(21명) |    |    |    |    | 계   |    |     |     |  |   |
|------|--------------|----|----|----|----|--------------|----|----|----|----|---------------|----|----|----|----|---------------|----|----|----|----|--------------|----|----|----|----|--------------|----|----|----|----|--------------|----|----|----|----|-----|----|-----|-----|--|---|
| 그 루  | 오전           | 아침 | 점심 | 오후 | 야간 | 오전           | 아침 | 점심 | 오후 | 야간 | 오전            | 아침 | 점심 | 오후 | 야간 | 오전            | 아침 | 점심 | 오후 | 야간 | 오전           | 아침 | 점심 | 오후 | 야간 | 오전           | 아침 | 점심 | 오후 | 야간 | 오전           | 아침 | 점심 | 오후 | 야간 |     |    |     |     |  |   |
| 인수목표 | 113          |    |    |    |    | 157          |    |    |    |    | 110           |    |    |    |    | 194           |    |    |    |    | 146          |    |    |    |    | 80           |    |    |    |    | 21           |    |    |    |    | 800 |    |     |     |  |   |
| 주역상  | 13           | 17 | 10 | 18 | 23 | 7            | 14 | 14 | 15 | 11 | 8             | 21 | 8  | 27 | 23 | 21            | 24 | 15 | 13 | 9  | 10           | 13 | 18 | 12 | 11 | 9            | 10 | 11 | 27 | 33 | 20           | 16 | 15 | 12 | 13 | 12  | 11 | 10  | 581 |  |   |
| 기 도  | 5            | 3  | 2  | 2  | 6  |              | 4  | 6  | 4  | 5  | 5             | 6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156 |  |   |
| 그 루  | 7            | 6  | 3  |    |    | 16           | 3  | 4  | 6  | 7  |               |    |    |    |    | 14            | 13 | 14 | 12 | 13 | 8            | 5  | 5  | 3  | 12 | 4            | 4  | 6  | 2  | 2  |              |    |    |    |    |     |    | 229 |     |  |   |
| 아침부흥 | 11           | 5  | 3  | 7  | 8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7 |     |  |   |
| 어린이  | 11           |    |    |    |    | 19           |    |    |    |    | 10            |    |    |    |    | 19            |    |    |    |    | 15           |    |    |    |    | 6            |    |    |    |    | 7            |    |    |    |    | 87  |    |     |     |  |   |
| 아빠노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6 |
| 종교문화 | 8            |    |    |    |    | 7            |    |    |    |    | 11            |    |    |    |    | 12            |    |    |    |    | 20           |    |    |    |    | 11           |    |    |    |    |              |    |    |    |    | 69  |    |     |     |  |   |

#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http://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1. 17. 16-03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mailto:triune@nate.com)

## 교회생활의 실행을 위한 다섯 가지 실질적인 항목

**영4:1-3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친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하며,  
또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고 화  
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함께 지킴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지키는 실질적인 길  
을 제시한다. 즉,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짊어짐과 화평의 매는 띠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전에서 이 표현들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실재는 모를 수 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는 주로 우리의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높은 표준을 내세우지 않고 겸허함으로 더 약한 이들을 사랑  
함**

먼저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 앞에 높은 표준을 내세우지 말  
아야 한다. 표준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허함을 참되게 실행하  
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외의 다른 것을 우리의 표준으로  
취하는 한 우리에게는 겸허가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높은  
표준을 내세운다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겸허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방  
언이나 치유의 은사도, 선교의 일도 우리의 표준이 아니다. 선교  
의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을 말  
하고 치유를 행하며 십자가를 전파하고 부활 생명을 가지며 거  
룩함을 살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이것들  
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어떤 것이 아무리 좋고 하늘에 속하  
거나 영적이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한 분열을 초  
래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예컨대 '거룩한' 교회가 있는 이유  
이다. 어떤 한 무리가 어떤 표준에 근거해 자신들을 교파로 부  
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은 여전히 분열이다. 그  
리스도께서 우리의 표준이시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분열적인 방식에 의해서라면 주장조차 해서도 안  
된다.

어떤 이가 영적이든 그렇지 않든, 주님을 많이 사랑하든 그렇  
지 않든 우리는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를 대하  
야 한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의 긍휼에 의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보다 더 잘 대해야 한다.  
만약 우리 앞에 뒤로 물러간 이와 영적인 인도자가 있다면, 우

리는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를 시험한다. 우리  
는 아마도 영적인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모두 뒤로 물러간 이를 더 사랑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가  
는 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의 사랑에 의해 회복될 것  
이다. 많은 경우, 어떤 이들을 더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우  
리의 냉담한 태도이다. 그가 교회생활 안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바로 냉담한 얼굴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더 약한  
이들과 더 어린 이들과 뒤로 물러 선 이들은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다. 나는 과거의 체험을 통해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  
들을 지나치게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오히려  
더 약한 이들과 육체적이고 혼적인 이들과 문제들이 있는 이들  
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문제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하  
지 않으면, 우리는 겸허가 아닌 교만에서 비롯된 높은 표준을  
내세울 것이다.

만약 우리가 표준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겸  
허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겸허한 생각을 하고 높은 생각을 품  
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약한 이들과 더 어린 이들과 뒤로  
물러간 이들을 사랑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  
하시기 때문이다. 사복음서에 따르면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선한 사람들보다는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  
주셨다. 이것이 참된 겸허와 낮아짐이다. 참된 겸허를 지나는 것  
은 우리 가운데 어떤 표준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교  
회생활을 하는 실질적인 길이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온유한 태도를 취함**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절은 온유를 말한다. 높은 표준을 내세  
우지 않는 것은 겸허와 관련된 우리의 동기를 시험한다.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표준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겸허함으로 모든 이  
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온유는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의 태도는 온유해야 한다. '온유'에 대한 헬리어는  
부드러움과 관대함과 이기적이지 않음을 함축한다. 교회에서 우  
리의 태도는 부드럽고 온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모두 부서질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이기적이라  
면 참되게 온유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온유함은 거짓일 것  
이다. 오직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참된 온유함이 있다.  
온유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자신을  
희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온유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의 성경을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에 대

해 우리의 태도가 온유하기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생하는 영이 있다면, 우리는 그 형제가 성경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경을 사용 하세요!"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온유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만약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태도는 까다롭고 거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며 관대할 것이다. 거짓됨이 없이 참되게 그러한 것이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에게는 거칠거나 까다롭거나 무지비한 태도가 아닌 부드럽고 온유하며 관대한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합당한 태도를 지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지하고 우리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동기를 아신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의 동기를 알 수 없다. 우리는 오직 그의 얼굴과 태도만을 볼 수 있다. 좋은 마음과 동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제에게 거칠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합당한 교회생활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모두 반드시 태도를 바로잡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 일에서 우리는 참된 부서짐이 필요하다.

교회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교회생활이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섬세한 것임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예표에 따르면 교회는 고운 밀가루로 만든 떡이다(레 2:1-5, 고전 10:17). 조잡하거나 거친 것은 교회생활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세속적인 방식으로나 종교적인 방식으로나 관찮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섬세한 방식으로 행함으로써 형제지매들에 대해 섬세한 표현을 지녀야 한다.

우리의 태도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만약 합당한 태도를 위해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많은 오해에서 구원받고 구출되고 자처될 것이다. 거의 모든 오해는 부주의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사탄은 항상 부주의의 한 태도를 이용하여 교회를 공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단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간교한 자가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는 것이다. 간교한 자는 여기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태도에는 원수가 이용하고 우리를 공격할 근거로 사용 할 수 있는 부주의함이 없어야 한다.

##### 말에 제한을 받음으로 오래 참음을 지님

에베소서 4장 2절은 또한 오래 참음에 대해 말한다. 나의 체험에 따르면, 오래 참음은 우리의 말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과 대화에 주의해야 한다. 특별한 원함이 있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도 그것을 삼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만약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생활을 위해 우리는 그것에 관해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2절에서 말한 오래 참음을 훈련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공과를 배우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아이기를 전달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소문을 만들어 내는 이 일에 자신이 얼마만큼 많이 연루되어 왔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일단 어떤 이야기가

한 다리를 가지면 내용이 변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매우 과장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소문은 항상 그렇다. 오래 참음의 공과를 배우려면, 우리는 우리의 입을 제한하고 우리의 혀를 멈추는 고통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성경의 기쁨 비쁨과 인도가 없다면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원수가 그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혀를 사용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 심지어 어떤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는 한마디도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오래 참음의 공과를 배웠다면, 우리는 합당하지 않게 말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2절이 말하는 오래 참음의 합당한 의미이다.

#####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람 가운데서 서로를 짊어짐

2절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고라는 권면으로 마친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려면, 우리는 교회생활에서 두려움과 의심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것 대신에 오직 사랑만이 있어야 한다. 어떤 형제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의심에 이어 두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만약 두 형제가 서로를 의심한다면, 그들은 서로에게 간첩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다. 실질적인 교회생활을 실현하려면, 우리는 모두 일어서서 의심에 맞서 싸워야 한다. 만약 전혀의 심이 없다면 서로를 두려워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결코 서로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로를 엿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어떤 형제들이 우리에게 대해 무언가를 말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라. 우리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내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의 주관적인 손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 제가 알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또 그것이 당신의 영광과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당신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것을 저에게 알려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어떤 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형제들에 대하여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두려움도 없다. 그러므로 엿탐할 필요가 없다.

##### 화평의 때는 따로 그 영의 하나를 지님

에베소서 4장 3절은 "화평의 때는 따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만 화평이 있고 모든 형제와는 화평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생활을 잃은 것이다. 교회생활은 우리가 수직적으로 단지 하나님과만 갖는 화평이 아닌, 수평적으로 모든 형제와 갖는 화평에 의해 검증된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화평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지나치게 깊은 관계를 맺거나 지나치게 무관심한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 화평의 때는 비는 교회 안에서 균형 있게 관계를 맺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 실행, 건축, 260-273p 발췌〉

##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

##### 고전2:1,5 「1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막힐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5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은 무엇인가? 회복은 마틴 루터의 때에 시작되었다. 궁극적인 회복은 무엇인가? 공동체 생활을 회복하는 것인가?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은 주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이고 일치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하나님의 비밀이며 내주시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으로 주입하고 분배하여, 믿는 우리로 그분을 표현하는 몸의 자체로 만들어 가시는 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 이 몸은 지방적으로 등대로 표현되는 데, 이 등대는 그분의 간증, 예수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이심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제 주님은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신다. 삼십백 년 전에 청교도들이 어떤 면들을 회복 했다. 그러나 그 중점들은 진젠 돌프나 존 넵슨 다비가 본 것만큼 뛰어나지는 않다. 형제회는 위대한 것을 발견했지만 그들은 교리에 치우치게 되었고, 성경 문자에 사로잡혀 실패했다. 주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주시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그분을 표현하는 몸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그분의 자체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다. 이 표현이 등대이다.

주님은 이것을 회복하신 후 그분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바울이 이 땅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수준 그 대모이다. 어떻게 그분이 이 이상의 것을 회복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항목을 지금 회복하고 계신다. 당신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의 모든 살아 있는 몸으로 만들고 계시나.

##### 세계 정세 속에서의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그분의 궁극적인 회복 그리고 최종적인 세계정세와 관련하여 우리들의 책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나의 부담은 정치를 말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위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신 이후, 그분은 주관적인 권위와 권세로서 역사속의 사건들을 안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세계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항들을 알고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들 대부분이 세사적인 지식에 따른 방식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세계정세가 하나님의 움직임이고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정세는 하나님이 안내하신다. 어떤 종족이 어떤 일을 해야 할 시기 그리고 또 어떤 곳에 언제 거주하는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내이다. 여러 민족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창17:26). 왕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나라를 쇠하게 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역사속의 사실들을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이상을 가져야 할 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복음은 지구의 모든 구석으로 까지 전파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예언했으며 그렇게 성취되었다. 모든 나라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꼭 150년 전에 하나님은 합당한 집회 방식을 회복하셨다.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얻으셨지만, 자신의 목적의 중심 노선을 결코 회복하지 못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교회는 단지 회중만이 아니라 그분의 몸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

사람, 등대 또 신부이다.

우리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과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도록 그분을 앙망해야 한다. 이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만유를 포함한, 만유이신 주관적인 그리스도로서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삼일 하나님의 완전된 표현이며 이제 생명주는 영이 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러한 분으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며,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매일의 가장 생활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셔야 한다.

우리는 바울의 예를 알고 있다. 그리스의 문명도시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은 웅변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고린도의 뛰어난 문명으로 인해, 그는 아름다운 지혜의 말을 사용할 수 없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2:1-4). 고린도인들에게 그가 전한 말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이었다(6:17). 빌립보 인들에게는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빌1:21)라고 말했다. 「죽든지 살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이 그의 기대와 소망이었다(20절).

당신이 받은 부답이 복음 전파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 혹은 좋은 집회들일까 나는 두렵다. 당신은 어쩌면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인식이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책임은 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영 안에 있어야 하며 완전하게 그 영에 의해 살아야하며, 일곱 배로 강화된 그 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사는, 영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은 하나이다(엡 4:4). 그들은 또한 실제적으로 새 사람이며, 삼일 하나님을 표현할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 우리의 책임

우리의 부담은 무엇인가?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단지 복음전파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말한(1:2, 9) 예수의 증거를 짊어져야 한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한 것처럼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16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산출해야 한다. 이것이 합당한 복음 전파이다. 어떤 숲책을 쓸 필요가 없다. 바울이 웅변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 우리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의 책임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며,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살아 있는 간증을 짊어지고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과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에 계시된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한 그 한 분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책임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또 그분의 몸, 새사람, 등대, 신부가 되는 방식으로 지방적인 위치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 안에서 모아야 한다. 우리가 살고 전파하는 그리스도가 나누일 수 없다.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나누일 수 없는 분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많은 과정을 거친 후에,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으로서 이제는 생명주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한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우리는 단지 회중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새 사람, 등대, 신부인 교회로서 지방 회장에 따라 함께 모인다. 또한 우리는 모든 지방에서 참된 하나-한 몸, 한 영, 한 성, 한 교회-를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생활이 우리의 궁극적인 책임이다.

〈'세계정세와 하나님의 움직임이심'에서 발췌〉